구약과 땅(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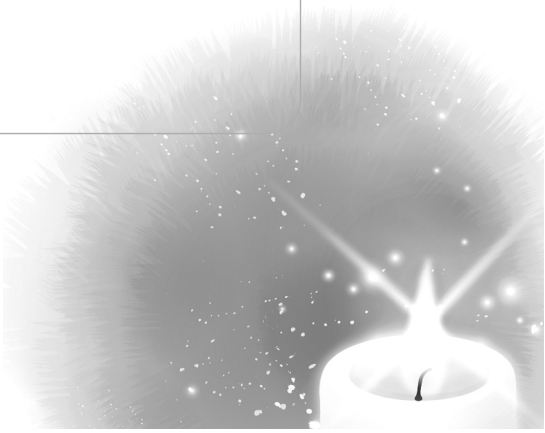
The Old Testament and the Land

신 득 일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 차

1. 서언 | 17
2. 정치적 측면| 17
   2.1. 영토(국가차원) | 18
   2.2. 토지(개인 차원) | 23
3. 경제적 측면 | 24
   3.1. 토지소산을 나눔 | 24
   3.2. 토지 매매법 | 26
   3.3. 토지 무르기 | 27
4. 신학적 측면 | 29
   4.1. 하나님의 선물 | 29
   4.2. 거룩한 땅 | 30
   4.3. 에덴의 복원 | 32
   4.4. 잠정적 성격 | 34
5. 결론 | 36



요약

구약과 땅(토지)

본 논문은 구약에 언급된 땅(토지)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땅은 약속의 땅으로서 이스라엘 국가의 출발점이자 삶의 근거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땅이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가져다주기는 하지만 땅에 집착한 결과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땅에 대한 구약의 규정은 백성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 이상적인 신앙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러나 그 규정은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신학적으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시작한 땅이고, 거기서 백성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준다.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의 소산으로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교제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준다. 더욱이 약속의 땅은 에덴을 모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낙원으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사라지고 구속사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새 언약시대에는 땅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인류구속을 위해서 활동하신 주요 무대로서 잠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The Old Testament and the Land

주요어
땅(토지), 약속의 땅, 기업, 희년, 구속사

Abstract

The Old Testament and the Land

Prof. Dr. Deuk-il Shin

This is a study in the meaning and role of land in the Old Testament. In the Old Testament, the Land of Promise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nation of Israel and the basis of life. Politically, the land brings about the well-being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but the result of clinging to the earth is being driven out of the land. Economically, the regulations of the earth is directed toward an ideal community of faith by making sure that there are no needy people among the people.

However, the regulations restrict land from being a means of property proliferation. Theologically, Promised Land is the land where God has begun the redemption of mankind, and tells us who is God working with the people there. It shows God of love and mercy who gives the people a gift of the earth, a rich life through the production of the land, and above all, communion with them. Moreover, because the promised land has the meaning of imitating Eden, it shows God's intention to restore the land to Paradise. However, by the disobedience of the people, the land disappears and a new phase of redemptive history begins. In the new covenant period, the boundaries of

the land disappear. So the promised land has a provisional meaning and function as the main stage where God worked for the redemption of mankind in the age of the Old Covenant.

Keywords | Land, the Promised Land, Jubilee, inheritance, redemptive history

1. 서언

인간생존의 근본이 되는 토지(땅)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구약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토지’란 말은 정착이나 인간의 활동을 위한 땅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용어가 따로 없고 일반적인 ‘땅’(’e̯re̯ṣ, ʼᵃḏāmā)이라는 말로 다 통용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상황에 따라서 땅, 육지, 토지, 영토, 지역, 영역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한다. 구약에서 그 용례가 어떻든지 인간이 장악하고 활동하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토지는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토지와 관련된 교훈이 현대 그리스도인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토지가 구약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정치적, 경제적, 신학적 측면에서 구약의 토지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치적 측면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살았던 지역을 정치적인 의미에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이 소유한 합법적인 땅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세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창 23:16; 33:19; 49:30). 그들은 반유목민으로서 다른 민족이 정착해 있던 땅에서 떠돌면서 살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계조차도 없었다.

2.1. 영토(국가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의 토지(땅)의 개념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후부터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구조를 가진 집단의 토지는 영토가 된다. 영토는 국가의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정복과 분배 이전에는 토지개념을 적용시킬 수 없다. 또한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멸망한 이후에는 민족은 있지만 주권이 없어졌지 때문에 토지나 영토에 대해서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창 15:7; 출 6:4). 그 땅의 경계는 사사시대부터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까지 약간의 유동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경계는 동으로는 요단 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으로는 브엘세바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까지라고 한다(삿 20:1; 삼상 3:20).[1] 물론 아브람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이지만(창 15:18) 한 번도 이 땅이 이런 경계를 가진 적이 없다. 그 땅의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로 이스라엘은 자신과 후손들이 정착할 안정된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완전한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정확하게 다윗시대까지는 약속의 땅에 대한 영유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왜 분배받은 기업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준다(삿 1).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1) 이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240km가 된다.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 지중해까지는 약 45km, 사해 북쪽 끝에서 지중해까지의 폭은 약 135km이다. 이 지역의 총면적은 약 18,000km^{2}에 달하고, 요단 동편 고지대를 합치면 30,000 km^{2}정도의 크기다.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의 크기가 될 것이다.

온전한 영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성의 연합된 행동과 정치적 연대를 이룰 수 없었고 영적인 통일성에도 항구적인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초기 이스라엘의 점령 구도는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스르엘 평원과 해안 평야, 쉐펠라, 블레셋 평야와 같은 평지는 가나안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차지했다(수 13:1-6; 삿 1:27).[2] 서부 중앙의 교통의 요충지인 게셀은 물론 산악지대의 여부스도 차지하지 못했다(삼하 5:6-7).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협곡을 중심으로 동서가 갈라지고, 이스르엘 평원을 중심으로 남북이 나누어져서 서로 왕래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사시대의 정치적 혼란은 약속의 땅을 온전히 장악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불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삿 2:2-3). 그 혼란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면서 나타나는 영적인 타락으로 가속화되었다. 사사시대에 나타난 여러 차례의 외부침략과 약탈이 그것을 보여준다(삿 6:4). 이스라엘의 지파의 정치적인 안정은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의 영유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반대는 점령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도 침략세력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보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삼상 11:1-14). 그렇지만 단 지파가 배정받은 지역의 기업(수 19:40-47)을 버리고 라이스에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한 것은 앞으로 변방에서 초래할 외침을 감당해야 했다(삿 18-19).

왕정초기 초대 왕 사울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었다. 사울은 당시 블레셋에게 복속되었던 이스라엘의 요충지를 회복하고(삼상 13-14), 여러 침략자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했다(삼상 14:47-48; 15). 그러나

---

2) 칼라이는 여호수아 13장의 내용과 사사기 3:1-4의 남은 땅에 대한 정보가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Zecharia Kallai, “The Reality of the Land and the Bible,” in G. Strecker, *Das Land Israel in Biblischer Zeit*: Jerusalem-Symposium 1981 der Hebräischen Universität und der 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Vandenhoeck, 1983), 81.

결정적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영유권을 행사한 왕은 다윗이었다(삼하 8:1; 왕상 4:9-11; 대하 11:8). 다윗의 통치는 지파동맹체로 존재하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그 국가의 위상은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머물지 않고 암몬, 모압, 아람과 에돔과 같은 주변국가를 점령하여 이스라엘을 작은 제국으로 만든 데서 나타난다(삼하 8-10). 다윗은 신정정치의 수호자로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주변국까지 위세를 떨친 솔로몬의 통치와 번영은 다윗이 이룬 기반위에서 출발한다(왕상 4:21, 24; 대하 9:26). 그가 이룬 외교와 통상도 다윗시대에 달리진 국격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는 평화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했다.[3] 이때 이스라엘의 주요도시가 요새화되었다. 예루살렘, 북쪽 아람의 영토와 마주대하는 하솔, 이스르엘 평원을 내려다보는 전략적 요충지인 므깃도, 평야에서 접근하는 서쪽 도로를 지키는 게셀, 아래 벧호른, 바알랏과 에돔과 대치해 있는 광야의 다몰을 요새화했다(9:15-19). 이런 요충지들은 국가의 내란이나 외침에 신속한 작전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솔로몬이 행정구역을 재편해서 각 지역에서 그 토지소산으로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도록 한 것은 토지가 내는 풍요를 백성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한 과도한 정책으로 보인다(왕상 4:7, 22, 27). 또한 솔로몬은 히람과 정치적 거래를 위해서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개를 주었지만(왕상 9:11) 다행스럽게 나중에 돌려받았다(대하 8:2).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처음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영토확장을 위해서 다투었다.[4] 재미있는 것은 영토확장과 백성의 정치적 평안과 번영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

3) 솔로몬이 유일하게 전쟁을 한 것은 하맛 소바를 정복한 것이다(대하 8:3).

4) 아비야 왕 통치 때 벧엘 북쪽으로 유다의 경계선을 그었으나 아사 왕 때 다시 벧엘 남쪽으로 그 경계가 정해졌다(왕상 15:16-17; 대하 13:13-20).

오므리는 세멜에게서 사마리아를 사서 그곳으로 천도한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은 것과 같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국력을 지중해 연안국가의 권력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류국가로 상승시켰다.[5] 오므리와 아합은 모압을 정복하여 아합 때까지 40년간 통치했다.[6] 그리고 아합은 여리고 성을 재건하고(왕상 16:34) 여러 성읍을 요새화했다(왕상 22:39). 또 앗수르의 살만에셀의 서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람동맹에 가담했을 때 아합이 전차 2천대와 보병 만명을 보낼 정도의 국력이 있었다.[7] 그러나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이룬 정치적, 군사적 업적과는 달리 가장 가혹하다(왕상 16:31-33). 솔로몬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2세도 마찬가지다(왕하 14:25-27). 그가 하맛 어귀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국운을 회복시킨 것은 언약적 복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영은 결국 언약을 떠난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의 토지와 가옥을 비롯한 경제적 착취를 당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현상이 두드려졌다(미 2:1-2; 3:1-3, 11). 북 이스라엘의 계속된 배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앗수르에게 점령당하여 영토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주전 722년). 남 유다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다(주전 586년). 하나님은 이스

---

5) Rainer Kessler, *The Social History of Ancient Israel*: An Introduction, trans. Linda M. Malone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8), 69.

6) Rainey & Notley, *The Sacred Bridge,* 211. 메사의 석비: "나는 그모스의 아들, 모압의 왕, 이본사람 메사다. 내 아버지는 모압을 30년 통치했고 나는 내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나는 카르호에 그모스를 위하여 이 산당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 신이 나를 모든 왕들에게서 구하고 내가 나의 모든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는 오랫동안 모압에 굴욕을 주었다. 그것은 그모스가 자신의 땅에 진노를 발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계승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길, '내가 모압에게 굴욕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내 시대에 그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내가 그와 그의 집을 이기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했다."

7) Bright,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243.

라엘을 나무같이 견고하게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고(출 15:17; 시 80:8-15), 또 그들의 토지를 잃을 것에 대한 경고도 받았지만(신 28:36-46, 64; 사 13:9; 렘 10:17-18; 16:10-13; 암 7:11) 그들의 집요한 배교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정치적 이스라엘은 영토를 얻으면서 시작되고, 영토를 잃으면서 종말을 고하게 된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관용정책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고토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한다. 이때 땅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즉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온 사람만 '거룩한 자손'(*zẹra haqqodẹš*)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스 9:2).[8] 그렇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한다고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소유일 뿐이다.[9]

구약은 영토가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연대를 이루어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터전이 되고 나라의 번영과 개인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정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했지만 그 땅을 보존하는 원칙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영토를 잃어버렸다(수 24:20).

---

8) Sara Japfet, "People and Land in the Restoration Period," in G. Strecker, *Das Land Israel in Biblischer Zeit,* 116.

9) 에스라 11장에는 기업을 나누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영유권을 가지고 기업을 차지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

2.2. 토지(개인 차원)

야베스의 기도는 사사시대에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개인적인 기도로 보인다(대상 4:10). 왜냐하면 그가 속한 족보 아래에 초대 사사인 옷니엘이 언급되기 때문이다(대상 4:13). 그가 경계(*gᵉbūl*)를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땅의 경계 즉 영역을 넓혀달라는 뜻이다. 이 기도는 개인의 재산증식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분배받은 땅에서 영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가 토지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말이다. 야베스의 기도는 땅을 확장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개인 차원에서 일어난 토지문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다(왕상 21:1-16). 이것은 아합이 사적으로 포도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죄는 '죽이고 빼앗았다'는 두 가지로 지적받았지만 사악하게 계획된 아합의 살인도 포도원 때문에 일어났다. 포도원을 팔거나 교환하자는 아합왕의 요청에 대한 나봇의 단호한 거절은 그 땅이 조상의 유산(*naḥᵃl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다는 것에 기초한다(왕상 21:3):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거류민이다. 땅을 영원히 팔거나 가족에서 따돌리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 아니다."[10] 나봇의 답변에 대한 아합의 어린아이 같은 반응에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세벨은 저주스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 일은

---

10) August H. Konkel, *1 & 2 King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6), 340.

왕이 불법으로 토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소유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이다. 아합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기꺼이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는 다윗과는 달랐다(삼상 24:24-25). 그는 백성의 안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이 역사는 토지소유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정치적 권력은 하나님의 저주스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경제적 측면

3.1. 토지소산을 나눔

주산업이 농업인 고대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경제활동의 주요기반이다. 구약의 율법은 약속의 땅이 아름답고 풍요롭다고 하면서(출 3:8; 민 13:27; 신 8:7 - 9; 11:10 - 12) 그 토지소산의 풍요를 누리되 그것을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라고 한다. 이 규정은 한 사람이 부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복지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레위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 밭의 언저리는 남겨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한다. 또한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도 줍지 말라고 한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9 - 10). 토지소산의 풍요를 토지가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과 나눌 것을 명령하는 법이다. 거류민(*gēr*)은 전쟁이나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본거

지를 떠난 사람을 말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지 않고 방치하면 당사자가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규정에 대한 신명기 율법은 좀 더 관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추수꾼이 추수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실수로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곡식다발을 묶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왔을 때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는 규정이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신 24:19). 그 혜택의 대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즉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감람나무도 대충 떤 후에 열매를 남겨놓아야 했다(신 24:20). 이것은 고대사회에 항상 존재하는 취약 계층을 위해서 토지의 소산을 나누라는 명령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 뒤따른다. 나중에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룻 2).[11] 취약계층을 위해서 토지의 소산을 나누는 근거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보여야 할 이웃사랑이다(신 24:22).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

---

11) 룻이 이 규정을 통하여 혜택을 받은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룻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

3.2. 토지 매매법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레 25:23). 여기서 '영구히'(*liṣmiṯut*)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란 말이다.[12] 이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대대로 넘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만 토지거래 자체는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부동산거래법과 같은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구약이 말하는 토지매매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이 지파별로 기업을 부여받았지만 어떤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팔수 있었다(레 25:25).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토지매매가 다 이런 형태를 띠는지는 몰라도 매매규정은 땅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종의 선물거래형식을 취한다. 매매할 토지가 농지라면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 토지의 가격은 희년까지 추수할 횟수만큼의 소출의 가격에서 결정된다(레 25:14-17). 구매자는 희년이 되면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토지거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레 25:17). 구매자는 토지를 팔아야 할 상황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매매규정은 토지거래로 인해서 부가 편중됨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엄청난 부를 누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나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공산주의는 아니다. 토지의 개인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투기의 가능성은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때 소유권이란 청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12) Ludwig Koehler et al.,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1994 – 2000), 1036.

토지거래를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모든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단지 거류민이자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 일뿐이다(레 25:23). 이스라엘은 자신이 거주할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다. 그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으로 얻은 토지에 대해서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유산으로 받은 이 토지가 영구히 남의 재산이 되도록 팔거나 탕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영원히 팔수 있는 재산이 있다. 그것은 도시의 성읍에 있는 가옥이다. 이것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가치가 상승된 것에 대해서는 일 년 안에 무르지 않으면 영구히 구매자의 것이 될 수 있다(레 25:29-30).

구약의 토지매매규정은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한 개인이 넓은 토지를 차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땅은 주거와 생산활동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토지공개념이 정착된 형태를 보여준다. 즉 토지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모두가 토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3. 토지 무르기

이스라엘은 희년이 되면 잃어버린 토지를 상환해야 했다. 희년의 상환법과 같은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에도 있었다. 그런데 그 법은 주로 왕이 등극할 때 왕의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빚과 세금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군복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희년과 같이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13]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

13) David A. Leiter, “The Year of Jubilee and the 21st Century,” *Brethren Life and Thought,* 47 no 3 - 4 Sum - Fall (2002), 168-169.

께서 그의 백성과 자신의 화해로 시작해서 백성들 간의 화해를 이루시려는 의도가 희년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오십년이 되는 해에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림으로써 소유관계 뿐만 아니라 주종관계, 채무관계 등을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오십 년을 기다리도록 해서 안 될 것이다. 희년이 되기 전에도 이스라엘에서 만약 사정이 딱한 사람이 자신의 토지의 일부를 팔았다면 그는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세 가지 경우로 제시되었다. 첫째,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구매자에게서 사서 그 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다(레 25:25). 둘째, 그 토지를 판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다시 구입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 토지는 구매자가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셋째,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무르는 제도에 예외가 있다. 그것은 도시나 성벽이 있는 가옥은 일 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구매자의 것이 되는 경우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기업(’ᵃḥuzzā)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은 무를 수 있고 또 다른 토지와 같이 희년에 상환된다(레 25:31). 레위인의 성읍의 경우는 무를 수도 있고 무르지 못할 경우에는 희년에 돌려주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레 25:32-33).

이 제도는 토지를 잃은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살도록 방치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다.[14]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회의 토지 독점이나 투기, 그로 인한 부의 양극화 현상은 차단된다. 특별히 희년의 상환제도는 토지를 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토지가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귀속되어서 모두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는 단순한 거주지 이상의

14) 신득일, “희년윤리,” 『고려신학보』 25 (1993), 28-43.

의미를 가진다. 즉 토지는 믿음을 통해서 백성과 백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4. 신학적 측면

4.1. 하나님의 선물

이스라엘에게 땅은 온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분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2:7; 13:15; 17:8).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반복되었다(창 26:4; 28:13; 35:12). 구약에는 '약속의 땅'이란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약속의 땅'(γῆν τῆς ἐπαγγελίας)이란 용어를 사용한다(히 11:9).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백성의 기업으로 주셨다(민 26:53 - 56; 수 11:23; 왕상 8:36). 이 기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언약적 조건이 있다. 즉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었다(민 14:29-30).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임무를 지닌 모세와 아론조차도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다(민 20:12; 신 4:21).[15]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이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 한 것은 아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쫓기는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신 9:4-6).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내쫓으심으로써 약속의 땅이 선물로 주어진

15) 신득일, 『광야의 반란』 (서울: CLC, 2014), 204.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자연적인 장벽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수 3:17).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되었다(수 6:20). 여호수아가 남부동맹군을 무찌른 것도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가능했다(수 10:13). 하솔을 중심으로 모인 북부 동맹군은 더 강력한 조직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치하셨다(수 11:6).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이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치르신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게 된 것을 인정하고 그 땅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수 24:11-14).

또한 그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것은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그 땅에서의 삶을 보장받는 것이다(신 4:40; 5:33; 11:1, 9; 32:46-47). 이스라엘 백성은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농사를 지은 후 곡물을 거둘 때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했다(출 23:19; 34:26; 레 23:9 – 10).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은 거기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했다.

4.2.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선물로 받은 약속의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이고, 또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출 15:17).[16] 그 땅이

16) Nahum 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82. "이것은 가나안 신 바알의 성소가 서있는 거룩한 산 *차폰*과 관련된 우가릿 문헌에 나온다. 여기서 고대근동에 만연된 종교적 표준표현이 시인에 의해서

원래 영화로운 땅으로 불리는 것도(단 8:9) 이 거룩함의 개념과 관련된다. 즉 거룩한 땅에 사는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으로 인하여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토해낼 것이라고 한다(레 18:25). 이것은 전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다(레 18:27-28). 땅이 토해낸다는 의인화된 표현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역겨움을 느껴서 토해내듯이 주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말이다. 즉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한다.

땅의 거룩성은 도피성 제도와도 관련된다. 이 제도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여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 이유가 땅과 관련된다. 즉 피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땅을 복수의 피로써 더럽혀서는 안 된다(민 35:33).[17]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고 한다(민 35:34).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언약을 저버릴 때 나타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힌 결과로 심판을 받았다(사 24:5; 렘 2:7; 3:9; 16:18; 겔 36:17-18).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소가 되고, 또 그 거룩한 장소에 백성은 그분의 속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교적인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유일신론화하여 사용되었다."

17) "그 땅을 가장 심각하게 더럽히는 것은 살해당한 자들의 피이다. ... 이는 살인자의 범죄의 심각성과 아마도 이스라엘의 사고 속에 있는 살해당한 자의 피가 물리적으로 땅을 오염시킨다는 피에 대한 신비적인 개념 때문일 것이다." T. Frymer-Kensky, "The Atrahasis Epic and Its Significance for Our Understanding of Genesis 1-9," *BA* 40 (1977), 154.

4.3. 에덴의 복원

"에덴동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땅 사이의 세 구성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겨냥하는 이상을 묘사한다."[18] 창조사역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에덴동산과 약속의 땅의 상관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1)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내시고 인간과 교제하셨다. 이런 특징은 약속의 땅에 관한 약속에서도 나타난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될 것이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라고 한다(출 15:17; 민 35:34). 임재와 교제를 함축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과 약속의 땅을 비교하는 본문에서 잘 나타난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교할 때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머무는 곳이다(신 11:10-12).

(2) 부족함이 없는 곳: 에덴동산의 특징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이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낙원이라고 한다. 이런 특징은 약속의 땅에도 적용되었다. 그곳에서 백성이 언약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화와 풍요,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레 26:3-12; 신 6:1-3; 17-19; 7:12-15; 11:8-15; 28:1-8; 렘 11:1-5). 물론 이런 상황이 무죄한 상태의 낙원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곳을 지향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토지소산을 나누는 데서도 나타난다.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약속의 땅은 에덴동산의 이상적인 조건을 반영하고 원래 낙원의 중요한 양상을 모사(模寫)한다. 에덴동산과 같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율법

---

18) J. McKeown, "Land, Fertility, Famine," ed. T. Desmond Alexander and David W. Baker,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Pentateuc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3), 490.

이 존중받고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풍요로운 장소이다."[19]

(3) 안식을 누리는 곳: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아담과 하와도 문화적인 사역을 하면서 안식을 누렸을 것이다. 물론 그들의 문화활동은 죄의 결과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노동의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 정착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표현한다(신 12:10; 수 1:13-15; 21:44-45). 이 안식은 단순히 안식일에 안식하고 안식년에 땅과 함께 노동을 쉬는 것만(레 25:2-5)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착생활을 함으로써 방랑을 끝내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안식의 성취는 성전건축과 함께 이루어진다(왕상 8:56). 즉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구약에서는 쉬는 장소로서의 안식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안식을 구별할 수 없다. 장소와 선물은 함께 간다."[20] 이 안식이 낙원에서 누리던 궁극적인 안식을 대망하도록 한다.

(4) 언약파기의 결과: 에덴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유지할 때는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관계가 깨어질 때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야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과 같다(레 26:3; 신 5:32-33; 6:10-12). 또한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면 저주를 받아서 멸절되어 약속의 땅을 잃게 된다(수 23:14-16).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림으로써 실제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 에덴동산과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결별한 상태에서 거할 수 없는 곳이라는 데서 상관관계가 있다. 인류의 첫 인간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

19) McKeown, "Land, Fertility, Famine," 490.

20) Horst Dietrich Preuss, "*n*ū ʿh," ed.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trans. David E. Gree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9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284.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전진된 국면으로 접어들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그 차원은 약속의 땅을 벗어난 교회시대를 예고한다.

(5) 완성 이후의 사명: 땅 점령이 끝난 것은 땅을 정복하는 창조의 계획이 완성된 것과 같은 일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성을 회상하는 용어로 묘사된 데서 알 수 있다(수 18:1; 19:51; cf. 창 1:28; 2:2).[21]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끝난 다음 인간은 낙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각자의 기업에서 그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바알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로 대체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사명완수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 그들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화신인 바알을 섬김으로써 실패했지만 약속의 땅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하다.

4.4. 잠정적 성격

구약에서 땅은 중요한 주제가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땅과 함께 등장하고 땅과 함께 사라진다.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과정에서 땅은 필수적이었다. 에덴동산에서 나온 인간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고, 아브람의 소명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족장의 한 가정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과 그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준비과정을 보여준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

21) John Goldingay, *Old Testament Theology*: Israel's Gospel, vol. 1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3), 513.

엘이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기반이 되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시온)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를 보여주셨다.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속계획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언약파기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상적인' 신앙공동체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애굽'을 함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스 6:19-22; 렘 24:5-7; 겔 36:24-28).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현실적으로 약속의 내용과는 다른 공동체로 보인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지만(렘 30:3) 그 땅은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페르시아의 속주로 분류될 뿐이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들을 압제자들을 주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사 14:1-2).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암 9:14-15).

본문의 의미를 고려할 때, 땅과 관련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은 종말론적인 이해를 요구한다.[22] 이스라엘의 회복은 옛 언약 시대가 새 언약 시대로 향하는 길목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자신의 거처로 택하시고 많은 나라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 언약백성이 되는 것은 제2성전 시대를 의미하지 않고 새 언약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예고하는 것이다(슥 2:10-13). 굳이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지정한다면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골고다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구속의 정점이 되는 이 대속의 사역과 오순절 사건이 교회 시대를 열면서 만국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여기서 옛 언약시대의 삶의 터전이었던 약속의 땅의 의미는 사라진다. 교회는 약속의

22) 한하르트는 후기 선지자가 언급하는 땅에 대한 예언은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도가 있음을 봐야 한다고 한다. R. Hanhart, "Das Land in der spätnachexilischen Prophetie," in Strecker, *Das Land Israel in Biblischer Zeit,* 135.

땅의 경계를 넘어선다(행 1:6-8). 사도들의 관심은 약속의 땅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 '땅끝'으로 그 관심을 확대시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 지역의 경계는 의미가 없다(계 5:9-10; 7:9-17; 21:9-27).

성경계시역사를 전개하면서 땅을 빼놓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항구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었던 약속의 땅은 옛 언약 시대에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그 경계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구약의 땅은 아무리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정적인 의미만 지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국가의 출발점이었다. 정치적인 면에서 그 땅은 백성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하는 터전이 된다. 이스라엘 정착 초기에는 땅의 영유권을 차지하는 것이 백성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길이 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땅이 확장되는 것은 나라에 번영을 가져다주지만 그 번영이 항상 복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번영에 집착한 이스라엘은 더 많은 사회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포로가 되어 그 땅에서 잘려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그 땅에서 항구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길은 개인과 민족이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토지소산을 나눔과 토지매매법, 기업무르기, 희년과 같은 약속의 땅에 관한 규정은 백성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 이상적인 신앙공동체를 지향한다. 또한 그 규정은 부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공정한 삶을 살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토지공개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약속의 땅을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그 땅은 역사 속에서 무의미한 땅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시작한 땅이고, 거기서 백성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준다.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의 소산으로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교제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준다. 더욱이 약속의 땅은 에덴을 모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낙원으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사라지고 구속사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즉 땅의 경계가 없는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인류구속을 위해서 활동하신 주요무대로서 잠정적인 의미를 갖는다.